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21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6월 22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시 승격 30주년 맞은 안산의 30번째 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개관한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단원구 광덕1로 198[고잔동])가 6월 30일(목) 오후 3시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날 기념행사로 영어동화구연과 북아트, 자동차 미디어극장 등 영어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체험행사와 암전퍼포먼스 미디어공연(Performance in the darkness)이 준비되어 있다. 깜깜한 무대가 시 승격 30주년과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는 레이저 문구로 수놓이며, 화려한 가면과 역동적인 손짓으로 진행되는 환상적인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전국에서 손꼽는 미디어·영어 특화 도서관

안산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미디어·영어 특화 도서관인 안산 미디어라이브러리는 미디어 분야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도하는 공공도서관이다.

(주)안산레이크타운PFV로부터 기부 채납되어 단원구레이크타운 내에 자리 잡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연면적 2,830.24㎡의 지상 3층 건물에 제1·2영어자료실, 미디어자료실, 영상·음향스튜디오, 미디어편집실을 갖췄다. 수준별 영어도서 1만3천여 권, DVD 2천711종 비치, 전문 영상·음향·녹음 장비를 갖춘 미디어정보센터로서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와 미디어의 콜라베이션

1층에는 100여 명 수용 가능한 강당과 세미나실, 휴게실, 이음카페가 있다. 강당과 세미나실에서는 미디어 관련 고가장

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층을 창출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세미나실은 동아리실로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청, 와동 책읽는 방에 이어 세 번째로 자리 잡은 이음카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휴게공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층에는 초·중·고급 수준의 영어도서가 비치된 제1, 2 영어자료실이 있다. 취학 전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전용공간과 영어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한 테스트 공간을 두어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영어원서를 대출하여 읽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언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3층에는 전문 영상장비를 이용해 영상콘텐츠를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영상스튜디오와 전문 음향·녹음 장비를 이용해 음향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음향스튜디오, 편집프로그램·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음향·이미지·콘텐츠 등을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편집실, 노트북을 이용

할 수 있는 노트북(48석), PC가 놓인 디지털석(40석), HMD(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쓰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 이용좌석인 미디어석(6석)과 가족영화관을 갖춘 미디어자료실, 사무실이 있다.

진화하는 도서관 서비스

회원가입, 대출·반납서비스, 희망도서 신청, 문화행사 운영, 도서예약, 상호대차·통합반납 서비스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

는 물론 DVD 대출, 가족영화관 예약 운영, HMD 체험 등 새로운 영역의 도서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지식 공유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서 안산시 도서관의 격을 한 단계 더 올릴 예정이다.



이용시간

토요일 ~ 목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제2영어자료실은 평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휴관일

금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문의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도서관(031-481-3348)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학습만한 성공의 지름길 없어

안산시 평생학습원, 시대변화 이끄는 교육·학습 서비스 펼쳐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 지식산업 사회로 변모한 지금 학습만큼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은 없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도서관, 복지관, 학습센터,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가능하고, 인간 수명 100세를 바라보면서 학습기간 또한 일생동안 이뤄지는 ‘평생학습’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의 한 부서이던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원으로 격상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학습 서비스를 펼치는 평생학습원 임흥선 원장을 만나보았다.

Q. 평생학습원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A. 평생학습 시대에 76만 안산시민이 즐겁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안산시를 학습생태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학습의 즐거움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시의 품격 또한 높아지는 것이 비전이라 할 수 있다.

Q. 평생학습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A. 평생교육과는 크게 성인 평생학습과 청소년 교육지원업무로 나뉘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길거리 학습관’을 안산시 평생학습의 대표브랜드로 키워갈 계획이다. 동네의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손님이 틈틈한 시간대를 이용해 지역주민 10~20명이 원하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지역 밀착 평생학습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돕는 효과가 있어 올해 30개소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활동지원을 하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미래직업 탐색을 돕기 위해 성포동 청소년수련관에 직업체험관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또 올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 안산지역 초·중·고 109개 학교 9만 2천여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혁신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보호까지 아우를 계획이다. 안산시는 매년 65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산은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외에 크고 작은 도서관 30곳을 운영 중인 도서관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도서관이 지역의 종합문화복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시대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도서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2016 안산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된 유명인 작가의 ‘오즈의 의류수거함’과 같이 매년 ‘안산의 책’을 선정해 독서 붐을 일으키고, ‘10분 독서운동’ 등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안산동과 반월동, 석수골, 신길동에 2018년까지 신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지식정보 서비스 격차를 없앨 계획이다. 6월말에 개관하는 안산의 서른 번째 도서관인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영어와 미디어 시설로 특화된 전문도서관으로 영상시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성비전센터는 문자 그대로 여성의 꿈과 행복을 디자인하는 교육을 운영 중이다. 여성들이 직업전문과정 수업을 듣고 육아·가사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Q.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선생, 상록수 최용신 선생 등 훌륭한 선조들의 정신이 이어져 온 고장이다.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 환경과 관련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있는가?

A. 우리 시에 대해 ‘지역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지역 통장,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Q. 안산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의 비전은 무엇인가?

A. 안산시의 평생학습도시 우수 정책들을 널리 알리겠다. 올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대상에 도전하고, 2017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평생학습 도시에 도전할 계획이다. 2018년에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총회를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평생학습과(031-481-2766)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 더 많은 우리동네 길거리 학습관을 알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학습모아길(<http://gil.gg.go.kr>), 안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earning.iansan.net>)

☎ 문의 : 길거리 학습관(031-481-3450)

시 설 명	시설유형	주 소	연 락 처	개방유형	개방요일	개방시간
쇼콜라 마루	초콜릿전문점	단원구 광덕1로 193, 505호(고잔동)	010-4878-0125	선택개방	화, 목, 금요일	11:00 ~ 19:00
카페 지나C	카 페	상록구 성호로 204(부곡동)	406-4010	상시개방	-	-
아름인도서관	도서관	단원구 화정로 9(선부동)	410-6070	상시개방	-	-
카페공방 굿엔레더	카 페	단원구 광덕대로 193, 신양타운 2층(고잔동)	483-0042	선택개방	평일(월 ~ 금)	11:00 ~ 13:00
카페모아(초당초점)	카 페	상록구 초당로 24(사동)	407-6622	선택개방	매 일	10:00 ~ 13:00
발아커피	카 페	상록구 감골1로 35, 지층 116호(사동)	407-3122	상시개방	-	-
녹색학원	카 페	상록구 건건3길 5, 202호(건건동)	437-7915	선택개방	평일(월 ~ 금)	09:30 ~ 12:30
BC800(부곡점)	카 페	상록구 성호로 308(부곡동)	520-2501	선택개방	평일(월 ~ 금)	09:00 ~ 11:00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안산시, 2016. 6. 1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산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등 세금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세무 상담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세금 문제임에도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마을세무사 도입은 많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박대관 세무사(이동, 본오1동 담당)를 만났다.



Q. 마을세무사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A. 안산시에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을 듣고 안산 세무사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라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세금납부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기회를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Q.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동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에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부족했다 싶으면 세무사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담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요?

A. 세금문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이 있는데 그것은 고지세액 청구 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세금은 덜 내서도 안 되고 더 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세금부과에 따른 정확한 납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다하게 많다고 느껴질 때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증빙자료를 첨부, 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Q. 마을세무사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시나요?

A. 재능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합니다. 세금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억울하다 생각되지 않도록 정당한 납세를 통하여 국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활성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시·구에서는 많은 홍보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도 높은 문턱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Q. 끝으로 마을 세무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정당한 세금납부야말로 발전하는 사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금에 대하여 공정성을 말한다면 불신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안산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문의 : 민원콜센터(1666-1234), 세정과(031-481-2198)
 김 선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마을세무사 명단

성명	담당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권재원	원곡동 선부동	031-495-1357	070-5030-5969	cta4916@nate.com
박상균	호수동 초지동	031-487-6400	031-483-3553	304psk@naver.com
김한결	사동	031-410-4797	031-405-4797	tmoman@naver.com
최장용	고잔동	031-475-3100	031-475-3103	choijycpta@naver.com
이보형	성포동 와동	031-401-2503	031-624-2504	cptalbh@naver.com
정광영	본오2동 본오3동	031-410-7300	031-410-3383	bs8225@yahoo.co.kr
박대관	이동 본오1동	031-410-8787	031-410-8784	moogab2001@yahoo.co.kr
박금서	일동 부곡동	031-480-1256	031-480-1201	ks1217@hanmail.net
노은현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031-410-2002	031-410-3003	ehnohg@naver.com
이영모	선부동 원곡동	031-402-5400	031-402-9119	leeymqqq@naver.com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지원 신청하세요!



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350억 원을 용자지원한다.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창업자금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며 용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고,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이다.

하반기 접수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며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 이자 차액 1.5%를 보전해 주며, 경기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의 우수기업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0.25%를 추가로 보전해 준다.

접수처 및 용자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 외환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 문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031-481-2625) ●

안산품
안긴 대부도

일요일이면 섬에서 아이들이 자란다

문화공간 섬자리, '놀다와 엄마'

주말이면 외부에 잘 알려진 방아머리나 구봉도 쪽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상동의 일요일은 매우 한산하다. 이렇게 일요일이면 조용해지는 상동 거리에 오전부터 아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해 지는 곳이 있다.



지금은 시화방조제가 생겨 연육화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섬 문화가 남아 있는 대부도의 특성을 담아 '섬이 있었던 곳, 섬이 잠들고 깨어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문화공간 섬자리>. 상동거리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 연구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커뮤니티문화예술그룹 <야행>의 팀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간은 섬 그리고 섬사람의 다양한 얼굴과 숨결, 손짓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상적인 공유지대가 되길 지향한다. 그 중 하나가 젊은 부부의 여가시간과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다.

문화시설이 많지 않은 대부도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휴식시간을 주고자 기획되었다는 <놀다와 엄마> 프로그램은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는 오롯이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재밌게 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오감체험 놀이를 제공한다. 젊은 부부들이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일자를 고려해 일요일, 하루 3시

간 동안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 때 참여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재등록을 했다고 한다.

높은 재등록률을 자랑하는 소수정예 체험프로그램.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담당 선생님은 아이들이 오면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담당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개입을 하며 아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최소한의 개입은 부모의 참관을 금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질문과 지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아이들의 경우,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른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답'을 요구하거나, 아이들의 발상과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한다.

매주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이 공간에 오는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한다. 덕분에 젊은 부부들도 잠시나마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시간이 서로의 사랑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평일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느라 녹초가 된 몸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주 일요일 3시간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모두 다를 테지만,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자라는 날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글 권혜진





김은한, object_MFA 'Lambretta' 1960



남상운, 가공된 풍경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욕 고취시키기 위한 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 초대전 열려

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 초대전이 오는 7월 1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수상·추천·초대작가 초대전은 그동안 서울 인사동에서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안산시 30주년을 기념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단원미술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전은 역대 단원미술제 수상이후 현재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전시와 창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함이다. 또 단원미술제를 통해 배출된 작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자리를 마련, 단원미술제의 성과를 검토해 보고 단원미술제 수상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단원미술제는 단원 김홍도가 이룩한 화가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진행됐으며, 그동안 실력 있는 많은 작가들을 배출하는 등 한국 미술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오는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2016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포트폴리오를 모집한다. 올해는 대상 수상작가에게 상금 3,000만 원이 주어지며, 선정작가 전원에게는 해외전 개최 기회도 지원하는 등 국내 최고의 미술제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7월)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축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

공연일정
2016년 7월 22일(금) ~ 31일(일)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단원미술관 제3관



어중씨 이야기(한국)
극단 '결판'

공연일정
7월 22일(금) ~ 23일(토)
금 8시 / 토 3, 7시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3세 이상

공연내용
<어중씨이야기>는 최영철 시인의 <어중씨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키는 대로 해보자는 삶의 미학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극단 결판 특유의 코믹한 연기와 명량한 음악으로 온 가족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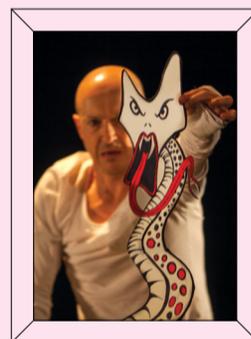
후아유(Who Are You) 루마니아
'탄다리카 인형극단'

공연일정
7월 26일(화) ~ 27일(수)
11시 / 2시

공연장소
단원미술관 제3관

관람연령 3세 이상

공연내용
<후아유>는 어린이 관객의 발랄한 시선으로 제작된 장난스러운 놀이와 동화가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부드러운 베개가 고양이 되고, 움직이던 사람이 나무가 되고, 하얀 이불이 숲으로 바뀝니다. 배우와 소품이 쉬지 않고 변하며 어린이 관객들이 비슷함과 다른 것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돕고, 끊임 없이 "너는 누구니?"란 질문을 던져 '나'의 의미를 찾도록 합니다.



몬스터(Mooooooooontres) 프랑스
'창작집단 라벨 브뤼트'

공연일정
7월 28일(목) ~ 29일(금)
11시 / 2시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내용
오브제극 <몬스터>는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무시무시하지만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괴물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능청스럽게 괴물과 어울리는 주인공을 보며 어린이 관객들의 두려움은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몬스터>는 어린이 관객들에게 실체없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한 마음을 선물해줍니다.



지구사용설명서(TRASHedy) 독일
극단 '퍼포밍 그룹'

공연일정
7월 30일(토) ~ 31일(일)
11시 / 2시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11세 이상

공연내용
<지구사용설명서>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묵직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거대한 스크린과 어울려 연기하는 두 명의 배우는 관객들과 함께 노래하고, 뛰고, 춤추고, 소리칩니다. 공연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태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2013년 웨스트워드 페스티벌 심사위원상, 아동관객상 수상

2016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매주 수요일 친근한 아마추어 공연이 안산 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안산시내 거리와 광장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친근하고 소박한 공연이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시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거리, 광장, 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가들을 선발하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공간에서 음악, 무용, 마임,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지난 5월 14일 성호공원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총 50팀의 공연을 무대에 세울 계획이며, 그동안 안산문화광장, 상록수역, 문화광장 C사이트 등에서 총 7팀의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6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은 그동안 시민과 함께 했던 장소를 지속적으로 찾아감으로써 '그 곳에 오면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시민들이 직접 요청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아마추어 공연가들에게 무대를 선물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힐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매년 거듭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6월 22일에는 성포예술광장(월피공원), 29일 마지막 주 수요일은 안산문화광장에서 아마추어 공연가들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6/22
수요일

음악분야

18:30, 성포예술광장 _
포크패밀리 / 7080, 골든팝, 영화음악

19:00, 성포예술광장 _ 도리토리 / 어쿠스틱 공연

6/29
수요일

댄스분야

18:30, 안산문화광장 _
T.L.G. people 크루 / 힙합, 얼반댄스, K-POP, 팝핀 등

음악분야

19:00, 안산문화광장 _
안산심포니 오케스트라 / 영화 및 드라마 OST 앙상블연주

문의 : 문화예술과 [031-481-2068]

우리 모두 기울어진 세월호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경기도미술관 '4월의 동행', 세월호의 아픔을 앓다

동시대의 아픔을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예술가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었을까. 경기도미술관 '4월의 동행' 전에선 예술가들이 어렵게 꼭꼭 눌러쓴 '기억'과 '염원'의 고백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마치 물에 잠겨있는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권용주 작가의 '기울어진'이다. 녹슨 파란 벽 앞에는 기울어진 의자가 있고, 원래 배 모양으로 설계된 경기도미술관 창문이 선실 객창처럼 보인다. 그곳에서 있으면 어느새 세월호 선체에 들어와 있는 느낌마저 든다. 어쩌면 작가의 말처럼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에 타고 있는 건 아닌지, 멈춰하게 됐다.

1시간 30분 동안 밤바다를 비추고 있는 장민승 작가의 '돌이서 보았던 눈'은 말없이 작품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 어두운 방안에 들어가 밤바다를 한참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쩔 수 없이 진도의 바다가 떠오른다. 희미한 등대 불빛만이 반사되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송곳이 마음을 찌르는 듯 아파왔다. 마치 2년 전

악몽 같았던 그 밤,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바다 앞에서 있는 것 같아 공포가 밀려왔다. 그 순간, 새한 마리가 바다 위를 낮게 날다가 먼 하늘로 사라졌다.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진 이들도 새가 되어 어딘가를 그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사적일 수 없는 바다. 그 바다에서 본 고통과 아픔을 도대체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캄캄한 공간의 한쪽 벽면을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채운 조수진 작가의 '천국의 얼굴'이란 작품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가 하늘에서 별로 뜨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각기 다른 빛을 발하며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별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마치 먼 곳에서 모스부호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져, 한참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가장 반짝거리는 나이에 사라져버린 젊은 영혼들은 정말 '천국의 얼굴'처럼 반짝이는 별로 태어난 건 아닐까. 아이들은 저 벽면 너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4월의 동행' 전시는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 같았다. 너무 깨끗해서 더 슬픈 '아이들의 방'을 볼 수 있었고, 만약 그 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

다면 어떤 풍경들이 펼쳐졌을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었다. 치유를 상징하는 봉선화 물을 들고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애도가 담긴 공동의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아마도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아이들이 읽었을 책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사랑과 우정, 정의와 자유를 말하는 구절들이 미술관 안에 잠잠히 울렸다. 이 기울어진 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형수는 어쩌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경기도미술관 '4월의 동행' 전시, 2016년 6월 26일까지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숲이
살아있다

생태전문가, ‘숲의 도시 안산’을 말하다

시청 뒷산 중앙공원 가는 길,
 피꼬리가 경쾌한 소리로 호로록! 운다.
 “후박나무의 원산지는 일본 목련”이며, “등나무 잎은
 여러 장처럼 보이지만 햇빛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잎가락이
 여러 겹으로 분화한 한 장의 겹잎”이라는
 박병권 교수의 이야기에 수강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인다.

지난 5월,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자연과 숲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생태체험 강의
 ‘봄바람, 숲 아카데미’가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시화호는 자연이 만들어준 환경 교과서

시화호 생명지킴이 박선미 사무국장

아시아 최장의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자 호수의 물이 썩고 물고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호수를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고 긴 노력 끝에 시화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겨울철 대송습지엔 큰고니 수백 마리가 날아와 방송에서는 시화호를 ‘백조의 호수’라고 소개했었죠. 시화호 남측 간척지인 대송단지 내에 있는 대송습지는 해마다 15만~20여 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며 ‘철새들의 낙원’으로 알려지며 철새탐조 관광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철새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뉴질랜드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철새들이 쉬어 갈 중간기착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철새들에게 중요한 먹이 서식처가 되었으며 다양한 조류들의 주요 번식장소가 되었습니다. 대송습지와 인근 지역에서 250종의 조류가 관찰됐고, 이 가운데는 원앙과 큰고니, 흑두루미 등 18종의 천연기념물과 안산의 시조인 노랑부리백로, 참수리, 황새 등 21종의 멸종위기조류가 포함돼 있어요.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버리고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된 시화호는 자연이 만들어준 환경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가치관, 목표가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숲은 대부분 단조롭고 식물의 구성도 단순해 숲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만한 여유가 없는 공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숲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숲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적·사회적·정서적 생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환경보전, 완충, 미세기후 발생 및 조절, 경관구성, 재난방제, 보건휴양, 역사와 문화, 교육과 여가 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중 높은 밀도의 인구집단에 대한 순화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의 입구를 숲으로 꾸며놓으니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훌륭한 인재로 자랍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도심 속 거대한 숲입니다. 도시의 허파로 인해 시민들은 활기가 넘치고 건강하지요.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수증기를 내보내 열과 먼지를 분산시키고, 호수는 바람을 일으킵니다. 호숫가를 손가락 모양의 장상지로 만들면 산책로가 길어져 사람들이 부대까지 않고 여유롭게 걸으며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노란 양지꽃은 가운데를 비워놓고 사방팔방으로 뻗으며 둥글게 핍니다. 작은 꽃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만들어낸 집단의 지혜인 것이지요. 느티나무의 아래쪽 가지는 둘러나기 형태로 가지를 뺏어 햇볕을 확보하고, 중간부분은 양쪽으로만 길게 뻗으며, 맨 위쪽은 성글게 자라 아래쪽으로 해를 분산시킵니다. 가지들이 서로 양보하며 배려합니다. 숲의 틈은 나무들이 나누는 대화인 셈이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가진 절반을 개미나 곤충, 인간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풀과 나무에게서 인간은 나누고 배려하면서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숲이 자라면 인성도 자란다

박병권 생태학 박사



우리가 원하는 미래, 숲의 도시 안산!

안산환경재단 신윤관 대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C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 두 배인 1.5°C가 올랐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 표면적의 3%에 해당하는 도시에서 전 세계 에너지사용량의 80%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아이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걱정하는 첫 세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구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식량·에너지·물 절약과 자립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소비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안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녹색에너지 시민 펀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너지로서의 숲의 도시,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숲의 도시에서 살 자격이 있는 시민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갈대습지공원에는 1급수에만 사는 수달 가족이 살고 있고, 시화호에는 철새가 쉬어가는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숲의 도시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동시에 생물의 서식지인 숲의 도시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의 기본은 경청, 소통하는 최고 기술입니다

‘2016 안산시 독서토론대회’ 열려

지난 6월 4일, ‘2016 안산시 독서토론대회’가 중앙도서관(학생부)과 안산시평생학습원(일반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2016 안산의 책’ 선정 도서인 초등부 「나쁜 어린이표 / 황선미」, 중·고등부 「오즈의 의류수거함 / 유명민」, 일반부 「그래도 괜찮은 하루 / 구경선」를 대상도서로 각각 부문별 논제가 주어졌다.

학생부(초·중·고등부)는 100팀이 참가신청을 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예선전을 거쳐 4강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일반부는 사전참여 신청을 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원탁형식의 자유토론을 했다. 학생부는 찬성측이 입론을 마치면 부정측에서 교차질문을 하고, 부정측 입론 후에는 찬성측이 교차질문을 하고 난 뒤 1분간 작전시간을 가졌다. 이어 찬성측 반론과 교차질문, 부정측 반론과 교차질문을 한 뒤 두 팀이 마지막 반론을 하는 ‘칼 포퍼’ 방식의 토론을 펼쳐나갔다.

이날 초등부 : 세 얼굴이, 중등부 : S-team, 고등부 : Astra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는 안산시장상이, 열정상에는 토론연구개발원장상이, ‘토론왕’ 3명에는 교육장상과 상패가 주어졌다.

MINI INTERVIEW // 고등부 Astra팀

Q.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A. 저희는 성안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도서부로 활동하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셋이서 당연하다는 듯이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수상 실적이 대학 입시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토론의 경험이 수시 면접이나 앞으로 우리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토론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과 가장 어려웠던 것은?

A. 토론의 기본은 용어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정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라는 부담이 커서 공부도 해야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민지가 선뜻 자기 방을 내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Q. 팀명 Astra의 의미는?

A. ‘Per Ardua Ad Astra’라는 로마 격언에서 별(Astra)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Q. 최우수상을 받은 기분이 어떤지?

A. 작년에도 참가했었는데 결승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상대팀 실력이 막강해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뻐요.



왼쪽부터 박연선, 김현민, 심민지 학생 ▶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6) /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6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붕주르, 과학!**



그 많던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신정민 / 출판사 풀과바람

어린이들이 고래를 통해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바닷속 생태계를 살펴보고, 지구 환경에 관심을 두도록 했다. 고래의 종류와 생태, 진화 과정 등 고래의 모든 것을 담은 고래 안내서이자 물속 생태계 보고서다.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바다의 숨은 진실을 알게 되고, 고래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저자 정재승, 이식 외 / 출판사 청어람미디어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지식과 사유를 보여주며 세대를 초월해 즐길 수 있는 지식은 픽션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교양 과학 필독서로 자리 잡은 책이다. 일상과 전문 지식, 과학과 여타 학문들을 넘나드는 통합형 지식으로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수학을 전혀 못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의 숨겨진 과학

저자 캐런 새너 / 출판사 양문

신경심리학과 신경동물학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들은 동물들의 삶에서 정신적·행동적 특성들과 동물들이 교류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경고하며 협력하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최신의 과학적 자료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물들이 수백만 년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적응과 생존을 위해 행동전략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수세미 실이 연결해준 소중한 이웃

우리 곁 평범한 천사들의 이야기<2>

마을 자원을 연결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돕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 사회보장협의체에는 다양한 직업의 동네주민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곡동은 복지관 관장, 통장, 발 마사지사, 경로당 총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마을의 복지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한 청년을 돕는 과정에서 ‘사랑의 수세미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곡동을 찾았다.



왼쪽부터 손선옥, 김금연, 엄경실, 정도선, 심희경

부곡동을 돌던 한 검침원은 정신 장애를 가진 청년이 혼자 사는 집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발견하고 동에 연락한다. 이 청년을 돕기 위해 모인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쓰레기집을 함께 치우던 중 많은 양의 수세미 실을 발견한다. 당시 요양원에 계셨던 청년의 어머니가 평소 자주 쓰던 실이 집에 많이 남아있던 거였다. 청년은 어머니가 하시던 뜨개질 배우길 희망하여 협의체 위원 한 분이 청년에게 직접 뜨개질을 가르쳐 주었다.

뜨개질을 배우며 청년은 점점 성격이 밝아지게 됐고, 수세미를 떠서 마을의 복지기금을 마련하자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에서 뜨개질을 하던 협의체 위원들을 보고 돕는 일손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함께 뜨개질을 했고, 복지관에 오는 청소년들도 뜨개질을 배워 직접 수세미를 떴다. 단순히 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차원을 넘어 뜨개질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됐다. 노인과 청소년, 동네 엄마들이 뜨개질을 가르쳐주고 배우며 깊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고립된 채 살아왔던 청년도 조금씩 마을로 나와 자기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복지관에 나와 설거지 봉사도 함께했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도 직접 모실 정도로 건강해졌다.

마을에서 조용히 봉사활동을 해왔던 협의체 위원들은 뜨개질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

협의체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손선옥 씨는 직접 만든 수세미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직접 수세미를 만들다 보니 우리 스스로 보람도 있고, 어디 얘기를 해도 뽐뽐하다” 손재주가 없었는데 어쩌다 액세서리 파트 담당까지 맡게 됐다. 김금연 씨는 “원래 코바늘만 잡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한 거니까 기를 쓰고 배웠을 뿐이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노인분과 사업을 맡고 있는 엄경실 씨는 “처음에는 남을 돕는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나를 돕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봉사의 기쁨을 말했다. 위원장으로 수세미 사업을 함께해온 정도선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는 동네에서 도우면 정말 좋은 것 같다. 국가 시스템 바깥에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 주변을 보살필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의 매력을 강조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6세 첫 영구치 관리, 평생 치아건강 좌우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건강한 삶 위한 다채로운 행사 열려

“충치 없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칫솔질이 우선입니다. 3·3·3이라고 해서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저녁 양치질은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6세에 첫 영구치가 나왔을 때 치아 홈 메우기나 불소 도포를 이용한 충치 예방을 해주는 것이 영구치를 오래도록 튼튼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인 지난 6월 11일 호수공원과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상록수 보건소 구강보건 담당 이현숙 주무관은 커다란 칫솔과 치아 모형을 들고 칫솔질 시범을 보이며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올바른 칫솔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살에 만나는 평생 건강 친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시 치과의사회가 함께 해, 구강검진과 상담, 구취측정 등을 해볼 수 있었고, 올바른 칫솔질 체험, 치아 만들기(치아 홈 메우기), 치과용 조영기기를 이용한 입속관찰, 치아건강을 위한 영양식단 등 체험관으로 시민에게 즐겁게 다가갔다. 이외에도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 상식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금연교실에서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보고, 유방암 자가 진단법과 신종 감염병 예방법, 혈압·혈당측정, 심폐소생술 이론을 배웠고 실습 등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5살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최영순(신길동) 씨는 “아이가 단 것을 좋아해서 평소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게 하는데요. 바른 칫솔질 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온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법에서 정한 ‘구강보건의 날’이다. 올해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첫해로서 행사의 의미가 더 큰 날이었다.

백미란 명예기자 _ why0218@naver.com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덕성초등학교는 시청 여성가족과와 함께 학교 앞 안전 지도를 제작하였다.

안전지도 제작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초등학교 반경 500m이내에 안전·위험요인을 스스로 알아보고 제작하며, 제작 후에는 학교 주변 위험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덕성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들은 4모둠으로 나누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곳, 안전한 곳, 표지판, 안전지킴이집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다. 교실로 돌아와 메모하고 사진 찍은 내용을 지도에 부착한 후 모둠별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니 사각지대나 위험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조사를 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지도 제작 담당 교사는 “제작 전에는 학생들이 안전에 민감하지 못했는데, 지도 제작 과정에서 안전한 곳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며 안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 주변 시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학교에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학생 모두

가 생활 안전 지킴이가 된 듯이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덕성초등학교는 이번 안전지도 제작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교에서 제작된 지도는 시에서 크게 제작한 뒤 여러 장을 학교에 비치해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아동 안전 지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전교생과 공유함으로써 범죄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여성가족과 (031-481-2260) / 덕성초등학교 (031-485-3747)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5만 6천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마을에너지상담사가 에너지 절약 꿀팁을 알려드려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 전기료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정답은 만 원.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귀가 솔깃해진다.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도 무지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을 때, 집 평수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을에너지 상담을 신청해보면 어떨까.

지난 한 달 동안 교육을 수료한 마을에너지상담사들은 신청 가정에 직접 방문해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게 된다. 와트맨이란 기계를 이용해 집에서 쓰는 대기전력의 양을 신청자들이 직접 볼 수 있어, 호응도가 꽤 높은 편이다. 2년 넘게 마을에너지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순옥 씨는 와트맨을 연결해 대기전력을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면 많은 시민들이 놀란다고 했다. “그동안 코드를 빼지 않아서 한 달에 5, 6천 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상담에 공감하세요.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

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전기 소모가 가장 심한 제품이 전기밥솥, TV셋탑박스, 전자렌지예요. 절전형 멀티탭을 연결해 필요할 때만 켜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강 씨는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 실습하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했다. “저도 처음에는 전기요금이 5만 6천 원 나왔는데, 교육을 받은 후에는 2만 2천 원으로 줄었어요. 시민들도 처음에는 ‘에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지세요. 올해 처음으로 마을에너지상담사로 활동하게 된 강민정 씨는 친절엄마가 늘 잔소리로 하던 이야기를 강의에서 똑같이 듣고 놀랐다고 했다.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걸 절감했다. 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에너지 상담 신청은 관내 약 4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희망하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희망일과 연락처를 남기면 마을

에너지상담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신청하면 전기료 절약을 위한 3구 멀티탭도 증정 받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구 환경을 위해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 에너지 절약. 너무나 흔하게 자주 들었던 잔소리를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 문의 :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031-485-1199)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안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 마무리

7일 의원전체회의서 기행궐 소관 ‘다문화지원본부’ → 문복궐 이관 합의

안산시의회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전체회의’를 열어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의회는 앞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안을 3개 안으로 압축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다문화지원본부’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으로 합의했다. 기존 39개 과를 담당하던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합의된 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영돼 오는 제230회 안산시의회(1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 첫 회의 갖고 활동 계획 등 논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가 최근 첫 회의를 갖고 도시 재생 방안 연구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희망발전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도시 재생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큰 틀에 있어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했다. 안산희망발전소는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도시 확장 등 ‘안산’이라는 도시에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 재생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다. 안산희망발전소는 올해 말까지 안산시의 현황 파악과 타 도시의 사례 분석 등으로 최근 연이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도시계획 변화의 중대 시점에 처한 안산시의 도시 재생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궐,

가습기 살균제 제품 불매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회사 제품의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행동’은 논란이 된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안산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등 18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8개 대규모점포 가운데 1곳만 제품을 철수했고 나머지 점포는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 대부분이 본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힐 뿐 제품 철거 등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의회가 관련 조례인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업체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은 시민행동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가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업체 측에 전달한 뒤, 추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워크숍 개최

행감기법 강의 등 의원역량 강화 초점

안산시의회가 2016년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별 전문성 함양과 의원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가졌다.

의회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충남 태안에서 의원 2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정례회 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1일차인 9일에는 개회식을 비롯해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의 ‘신사업창출 지원을 위한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제고 방안’ 강의와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의 ‘행정사무감사와 실천사례중심 종합전략’ 강의,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김영식 남부대학교 효사랑웃음연구소 소장의 ‘웃음으로 소통하라’ 강의에 이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하는 화합 체육 행사를 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이 실시된다.

동염평 주전경

대부도 동주염전은 1950년대부터 소금을 생산해 온 전통 염전이다. 이 곳의 소금은 햇빛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만나 만들어진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노적봉미원

장미의 계절은 짧다. 뜨거운 태양 아래 불타는 장미를 보고싶다면 노적봉 장미공원으로 가자. 그 강렬함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편안한 안식처 안산에 산다

처음 안산에 이사를 왔을 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었는데 어느새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30년을 넘게 살았나보다. 선부동주공6단지를 분양 받아 왔을때는 전화도 개설이 안되었고 병원도 고대병원을 빼면 갈만한 곳이 없어서 불편한 게 많았는데 지금의 안산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고 시민들의 의식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높아졌다. 주변을 산책하며 운동하기 좋고 먹거리 볼거리 풍부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참 좋은 도시이다.

아파트 옆 적당한 거리에 광덕산이 있어 아이들과 휴일이면 산에 올라서 작은 골짜기의 흐르는 물에서 가재도 잡고 여러 가지 곤충을 찾아서 채집하고 약수터에서 약수도 마시며 놀다보면 하루해가 저물곤 했었다.

주말에는 협궤열차를 타고 소래포구로 나들이를 나갔었다. 소래포구에는 각종 해산물과 젓갈을 저렴하게 사올 수 있어서 자주 가곤 하였다. 특히 외국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신기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놀다가 기차를 놓치면 철길을 따라서 안산까지 걸어보기도 했던 철길이 이제는 추억 속으로 접혀 있었는데 그 철길이 이제는 예쁜 산책로로 바뀌었다.

집에서 몇 걸음만 나가면 주변의 흐르는 하천을 비롯하여 전철선 아래 만들어 놓은 공원겸 놀이터는 안산의 또 하나의 볼거리고 자랑거리인 것 같다. 안산시민들이 재능을 기부하여 만들어놓은 공원길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예쁜 돌 의자를 비롯하여 시에서 가꾸어 놓은 각종 꽃들의 향연은 덤이다. 옛날 협궤열차가 다녔던 기차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오밀조밀 꾸며 놓아서 아이들이 즐

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어른들도 간단한 먹을거리를 가져와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 읽는다면 고상의 레일 위를 오가는 전철의 소음도 음악소리로 들릴 것 같다. 나는 시간만 나면 손녀를 데리고 철길따라 만들어놓은 산책길로 산책을 나가는데 근래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피아노 덕분에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본다. 길거리의 피아노라서 소리가 날까 했는데 걱정을 무색하게 음질마저 청아했다. 아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넓은 밖의 아름다운 봄풍경 속에서 듣고 있자니 어느 연주회보다도 감회가 깊었다. 이렇게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도 하면 멀리 나가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더 볼어 머지않아 다가오는 여름도 안산의 여기저기 숨어 있는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지내다 보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겠지...

안산은 아직도 아쉬운 것이 많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친구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소리도 자주 들지만 나는 안산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안산을 기대한다.

조성숙(단원구 초지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diansan.net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 3대 수칙

1 물을 자주 마신다.

물, 스포츠음료, 과일주스



카페인 음료, 주류



2 시원하게 지낸다.

- 시원한 물 샤워, 목욕
- 실내 적정온도 (22~26℃) 유지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5시) 휴식



2016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상실

01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02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03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04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집니다.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늦을수록 후회 빠를수록 이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최대 6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신청문의** **1588-0075**, (국번없이) **1355**
- 미가입사업장 신고**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센터 www.kcomwel.or.kr
 -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 신고센터 www.nps.or.kr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안산 시승격 30주년

안산시립국악단 제50회 정기연주회

창단 20주년 기념

역대지휘자 초청연주회

새로움을 그리다 2



김재영
안산시립국악단 2대 상임지휘자

2016년 6월 29일(수) 오후 8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관람료 전석 10,000원**
 - 무료 국가유공자 (배우자포함 복지카드 지참) 경 호 (만 65세 이상, 신분증 지참)
- 할인 80%** 장애인 할인 (1~3급 동반 1인 포함, 4~6급 본인에 한함, 신분증 지참)
- 30%** 청소년 할인 (만 19세 미만, 신분증 지참, 일반 50명 이상 단체)
- 30%** 시립국악단 문화가족 및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 일반 30명 이상 단체
- 예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31)481-4000 (www.ansanart.com)
- 문의** 안산시립국악단 (031)481-4097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4

주 최/ 안산시 주 관/ 안산시립국악단

노인취업상담 및 무료 취업알선

- 신청접수** 수시접수(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구직대상** 만 60세 이상(남 여 구분 없음)
- 주요직종** 주차관리 / 가사돌보미 / 미화원 / 경비원 / 생산직 / 영선 / 조리사 / 주유원 / 기타서비스
- 접수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취업센터에 방문 접수
- 접수장소** 대한노인회 안산단원구지회 취업지원센터
선부동 단원구노인복지관내 2층(선부우체국옆)
- 문의처** 031-403-8787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자두의 효능

- 빈혈 예방 효과**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바나나의 약 13배)
- 변비 해소 효과**
변비 해소에 좋은 펙틴이 풍부하여 변비에 자주 걸리는 여성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 맛있는 자두 고르는 방법

- 껍질에 얼룩과 상처가 없는 자두가 좋습니다.
-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무거운 자두가 좋습니다.

* 맛있는 자두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

- 덜 익은 자두는 상온에 보관하고 익은 자두는 냉장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두 껍질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과분)은 맛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먹기 직전에 씻어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꼭 먹어야 하는 자두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16년 6월 16일 ~ 6월 30일
-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문의처** 상록구청 세무1과(☎ 031-481-5195)
단원구청 세무1과(☎ 031-481-6190)
민원콜센터(☎ 1666-1234)

